



[산업] 개소세 인하로 車 값 폭 지금이 구매 적기 06



Economy

코스피	1978.01 (0.00)	코스닥	610.73 (0.00)
금리 (2년)	1.10 (-0.09)	환율 (USD)	1213.70 (-3.50) (2.28)



하나로마트 마스크 구매 인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하나로마트 서서울농협 사직점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농협은 주말을 맞아 마스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서울·경기 지역 319개 하나로마트에 마스크 55만 장을 특별 공급했다. /연합뉴스

# 세계증시 7000조 증발

코로나19 대유행 공포감에 패닉 원유부터 안전자산 '금'까지 약세 금융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 관측

특히 지난 주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pandemic)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세계 증시가 이른바 '블랙 위크(Black Week)'에 돌입했다는 말도 나온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 '패닉' 상태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는 등 모든 투자 자산에서 엑소더스(탈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도 폭락했다. 5거래일 동안 3조1800억달러의 시총이 날아갔고, 다우지수 주간 하락 폭은 2008년 10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1일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의 시가 총액을 집계한 결과 2월 27일 기준 83조1576억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고점인 1월 20일(89조1564억달러)보다 5조9988억달러(6.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 600 지수 역시 2008년 10월 이후로 최대 낙폭(-12.7%)을 기록했다.

원유 시장도 패닉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8일 만에 7290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2018년 기준 1893조원인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일주일 동안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62달러, 16.14%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 ◆ 투자 자산 '엑소더스'

해당기간 시총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증시의 시총은 35조5154억달러에서 33조1276억달러로 2조3878억달러(6.72%) 줄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모든 투자자산에서 '엑소더스'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안전자산인 금도 나홀짜 약세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4.6%(75.80달러) 내린 1556.70달러에 마감,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러 일본(6107억달러), 홍콩(3531억달러), 영국(3150억달러)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한국 증시의 시총은 1904억달러(230조4792억원) 줄어 감소폭이 6번째로 컸다.

### ◆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8%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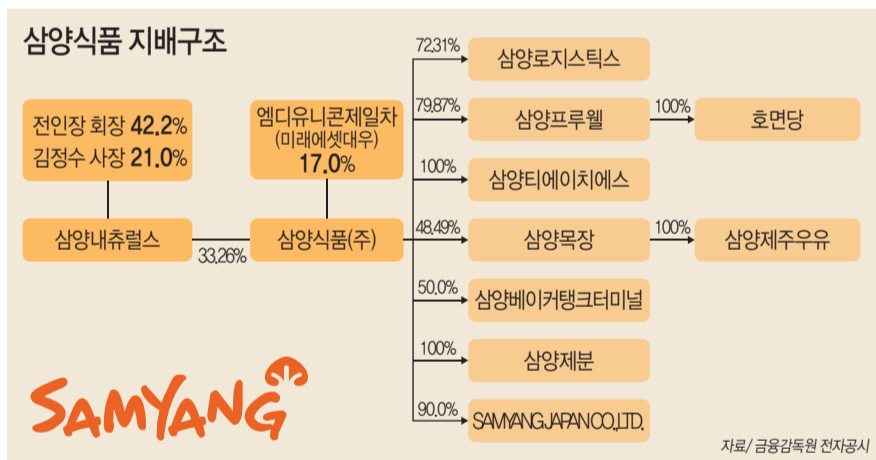
/손범기 기자 sonumji301@

## '횡령-배임' 대법원 유죄확정 속 이번엔 탈세재판

# 삼양식품 오너일가 퇴출 기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나서나

'횡령' 전인장 회장 구속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탈세혐의 재판

CEO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에 미래에셋 가치훼손 책임물음듯



삼양식품이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횡령·배임 경영진 퇴출'의 첫 타깃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최고경영자(CEO)인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모두 횡령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도 유죄가 확정됐고, 전인장 회장은 구속 중이어서 사실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인장 회장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영진의 횡령에 대해 이사회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 역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해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사내이사도 김정수 현 총괄사장을 임기 3년으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다.

삼양식품의 CEO는 전인장 회장과 배우자인 김정수 사장이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 지분을 각각 42.2%, 21.0%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모두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양식품이 계

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김정수 사장마저 유죄가 인정되는 CEO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했다.

여기에 전인장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구속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로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경영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2대 주주는 지난해 9월 HDC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대우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는 삼양식품 주가가 인수가보다 낮을 경우에 대비해 HDC로부터 차액을 보전받기로 약속했다.

HDC와 미래에셋대우 모두 삼양식품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삼양식품의 지분율을 5.27%에서 4.1%로 낮췄다. 5% 이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서 횡령 등 법령위반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동에 나설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성장과실, 국민과 함께 기업시민 역할 더 강화



### <中> 상생 실현

삼성에는 사회에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현금, 상품권, 구호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인 만큼 상생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6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각 사업장 내 협력회사 등에 지급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등 계열사가 함께 참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자 26일에는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 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세트 등의 구호물품과 구

호성금을 포함해 총 30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등14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한편 삼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대금 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다. <6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